

한경 BUSINESS



하반기 주식시장 3가지 키워드
낙찰가 상승시대 효과적 경매 투자법
대기업들의 숨은 '알짜 물류' 계열사들

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다



톱스타 & 정·재계 인사들의 은밀한 휴양지 가평 르포

'위대한 승리'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학
삼성전자 조직 개편에 담긴 이건희 회장의 구상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우는 돈 잘 쓰는 기술

값 3,500원



국영기업 자회사 M&A

비주력 분야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

정정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한국경제신문



베트남 외국인 투자 2위국인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 국영기업의 부동산·건설업 분야 자회사 지분 인수에 매력을 느낀다.

베트남 재무부는 국영기업의 비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자본금 투자 비율을 계속해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정(Decree 9)에는 국영기업은 총투자금의 70% 이상을 자신의 핵심 사업과 동종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국영기업은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총투자금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입법 예고된 '정부 투자 기업의 자본 관리와 운영 및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영기업 경영자에게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재무부 담당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종래 국영기업들은 비핵심 사업 분야에 방만하게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도록 한 'Decree 9'을 잘 이행하지 않았는데, 새 규정을 통해 특히 위험성이 높은 증권·보험 및 부동산 분야의 투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사실 베트남에서는 은행 간 대출금리가 20%를 넘어 제조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영기업들도 본연의 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증권·부동산 등 조달 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 이 때문에 특정 산업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면서 경

제의 근간이 흔들릴 지경에 놓였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간접적으로 은행의 비생산적인 분야 대출 비율을 올 6월 말까지 22% 이하, 올 연말까지 16%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국영기업의 비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은 증권·보험·부동산 등 비핵심 사업을 하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베트남 경제는 아직 이런 매물을 내부적으로 소화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업 사냥의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섬유·의류 분야가 주된 사업인 비나텍스(VINATEX)는 아시아상업은행(Asia Commercial Bank)의 주요 주주로 출자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건설 회사 인수 매력적

최근 한산공영은 베트남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 Vietnam)의 자회사인 페트로베트남건설(Petro Vietnam Construction)의 주식 1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와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제조·가공업(205건, 33억 달러)에 이어 부동산·건설업이 2위(54건, 4억748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올 상반기 베트남에 직접투자한 38개 국가 중 싱가포르(13억3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투자(6억7360만 달러)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국영기업의 부동산·건설업 분야 자회사 지분 인수에 매력을 느낀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시장 진입 장벽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영기업이 보유한 내실 있는 자회사의 지분 인수를 고려해 보자. □